

方形孔 二十三個를 내었는데 上部 中央에 못을 박고 그 左右로 各各 六個, 그 밑에 못이 左右로 박히고 다시 밑으로 心端과 그 左右로 各各 五個씩이 있다. 文樣은 約 三mm의 幅으로 表現되었고 그 間地를 透刻하여 文樣을 이루었다. 文樣帶의 兩周邊으로는 못자리를 내 놓았다. 文樣은 心葉中央에 形이 있고 上下中心線에서 左右로 相稱의 形으로 나타냈는데 漢이나 高句麗瓦當에서 보이는 고사리文이 主가 되고 그것이 擴大 或은 變形된 形態를 보이고 있다. 或은 環頭大刀의 環頭나 金鈴塚에서 出土된 杏葉에서와 같이 忍冬文의 中央一葉이 省略된 것같이도 보여지나 中央×形 밑에는 같은 文樣이 上下二重으로 表示되었는데 이것은 고사리文의 擴大形으로 보여진다.

杏葉은 우리나라 古墳에서 發見되는 例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優品은 드물다. 鑄色도 매우 아름답고 透刻手法도 闊達流暢하다. 大形에 屬하는 傑作品으로서 特히 透刻文樣은 매우 興味있는 文樣이다. 다만 아까운 일은 出土地가 玄風地方일 것이라고 傳할뿐 確實한 곳을 알 수 없는 일과 併出遺物이나 關係知見을 全然 알 수 없는 일이다.

### 慶北 英陽郡의 塔像 (二)

尹 容 鎮

#### 一、英陽面 縣一洞 三層石塔

이 塔은 縣二洞의 模塼石塔과 江을 사이에 두고 對置하고 있다. 現在 地臺石以下 部分은 畚中에 埋沒되고 露盤以上의 것은 缺失되었다. 部分 別로 본다면 上臺中臺는 四枚의 板石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高는 八五cm 各面의 兩端과 中間에는 撐柱가 刻出되었으며 撐石과 隅柱사이의 面石에는 八部衆神을 陽刻하였다.

部分的으로 磨滅及 破損되어 뚜렷한 美的感覺은 若干 損傷되었다고는 하나 像의 윤곽과 衣裝表現의 솜씨는 裝飾의 表示를 벗어나 훌륭한 技

法이라 할 수 있다.

甲石은 二枚의 別石으로 構成되었으며 一邊이 一七二cm이며 下部에는 副緣이 있고 上部에는 角形의 二段의 副緣이 있어 塔身을 받치고 있다.

第一塔身은 高가 一七七cm 幅이 一七三cm로서 거의 正方形을 이루고 있다. 側面의 各 兩端에 隅柱가 있고 各 面마다 四天 王像을 各一軀씩 陽刻하여 裝飾하였다. 寫實的이면서 流暢한 彫刻 솜씨는 上臺中石의 八部衆神과 더불어 慶州南山의 僧燒谷寺址三層塔及 昌林寺址石塔에서 보는 것 以上の 纖細性을 보인다. 屋蓋石은 各各 四段의 받침을 갖고 있으며 上部에 塔身을 받치기 위한 二段의 副緣이 있다. 落水面의 傾斜는 甚한 셈이나 緣部가 若干 위로 反轉하여 曲線化시켜 傾斜의 不自然스러움을 減하고 있다.

全體적으로 볼때 塔身과 屋蓋石은 各各 一石으로 되어 있으며 花崗石 質로서 全體高가 三·五m이다. 均衡이라던지 第一塔身, 上臺中石에 彫刻한 樣式 그리고 그 彫刻의 手法 等으로 볼때 建立은 新羅時代 造形藝術이 가장 多樣·美麗하게 發達한 西紀八世紀의 後期것으로 推定된다.

이 塔에서 北쪽으로 七一八〇m 北쪽에 花崗石質의 幢竿支柱가 畚中에서 있으며 旗柱를 세우기 위한 바닥에는 四角石板에 圓形의 홈을 파 두었다. 아마 이것은 塔의 寺院인 것으로 본다. 支柱石의 高는 一·四五m 幅의 徑은 三八cm이다.

#### 二、英陽化川一洞 三層石塔



化川洞石塔은 英陽에서 盈德으로 가는 道路를 三km가량 가면 道路邊에 化川一洞部落이 나선다. 塔은 이 部落 한가운데 있는 田中에 遺存한다. 中臺石의 半以上과 그 以下것은

崩壞 埋沒되어 아무런 保護도 받지 못한채 放置되어 있다. 保存을 爲한 諸般조치가 時急한 狀態에 놓여 있다.

下臺中石은 各面마다 三枚의 板石을 連結하여 構成하였고 小板石마다 眼象을 새겨 두고 가운데다 十二支像을 一軀씩 陽刻하여 두었다.

上臺中石은 各面이 二枚의 板石으로 構成했으며 各板枚마다 八部神將을 一軀씩 陽刻하였다. 甲石은 四枚로 되어 있고 副緣과 扉임이 붙어 있다. 第一塔身은 單石으로 隅柱間의 面石에는 四天王像을 새겨 두었다. 屋蓋石은 四段의 받침을 갖고 있으며 위에는 四段의 扉임이 있다. 塔面에다 十二支像, 八部衆神, 四天王像을 彫刻한 것은 求禮 華嚴寺 西, 五層石塔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과 比較할 때 諸像의 彫刻 手法面에서 寫實的이란 것과 特別 面像이 嚴正하고 衣裝文이 雄麗함에 거의 같은 感覺을 주는데 華嚴寺의 것은 그 塔身이 좁은 感覺을 주는데 對해 이것은 慶州地方에서 볼 수 있는 一般型이란 程度의 差가 나타날 따름이다. 아쉽게도 塔上部와 下部가 崩壞 缺失되어 그 全體의 雄麗함을 보지 못함 이 애석하였다.

造成年代는 新羅初期石塔의 特徵인 建築的 樣式을 벗어나 裝飾的인 傾向을 나타내는 西紀八世紀頃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甲石 幅 二一六 cm

第一塔身 幅 九六 cm 高 八〇 cm

第二塔身 幅 八〇 cm 高三二 cm

全體 高約 三八〇 cm (露出部만)

以上 英陽近方을 둘러 볼 때 模塔塔으로서의 特色있는 外觀이라든지 石塔으로서의 優麗한 모습 등을 볼 때 훌륭한 美術이 그나마도 慶州에서 먼 地方의 한 곳에 集結해 있는 것은 英陽이란 곳이 佛敎의 한 中心地를 이루지 않았나 生覺된다.

以外에도 英陽에는

化川洞에 石佛坐像一軀(高 九二 cm) 日月面

道谷洞에 石佛坐像一軀(高 一一二 cm) 立岩面

新舊洞에 三層石塔(高 二五五 cm)과 石佛(高 五三 cm)이 있다.

## 樂生面出土 金銅菩薩坐像

崔 淳 雨

一九六三年 八月 장마 후에 京畿道 廣州郡 樂生面 石雲里(별운리) 당골 마른溪川에서 部落民 李康湜氏가 發見하여 保管하고 있는 金銅菩薩坐像一軀를 機會가 있었으므로 그 概略을 써 두고자 한다. 이 佛像是 靑銅鑄造로 된 全高 一三·三 cm 佛高 九·六 cm의 結跏趺座한 菩薩形坐像으로서 內部는 空洞으로 되어 있고 表面에는 全面에 두꺼운 鍍金이 있었던 모양으로 相好와 앞가슴에는 아직도 찬란한 金色이 거의 完美하게 남아있다. 머리에 쓴 보자기형으로 보아 削髮한 地藏菩薩形으로도 보여지며 그 類型的인 作例를 들자면 寶物로 指定된 禪雲寺 地藏菩薩像을 들 수 있다. 手印은 바른손은 위로 들어서 外掌한 듯하나 손가락이 이즈러져서 明瞭치 못하며 왼손은 배앞에 水平으로 들고 있으나 持物은 現在 남아 있지 않다. 팔각지 璽珞等 華嚴具의 장식은 없어서 大體로 簡朴한 아름다움을 示現하고 있으며 比例가 큰 머리에 넓은 이마에는 白毫가 있어서 마치 如來形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 菩薩像의 特異한 樣式를 찾자면 오히려 그 臺座部에 있으며 네모를 동굴린 이 方形臺座는 높이 三·五 cm 面의 넓이 六·三 cm 側面 七·三 cm의 크기이다. 이 臺座는 그 높이 中間에서 窄록

